정말로 성경책 맞으세요?

데이빗리 목사

홀리타임즈

정말로 성령님 맞으세요?

데이빗리 목사

홀리타임즈

목 차 CONTENTS

제01과 하나님의 음성듣기 7
제02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유익함 14
제03과 하나님의 음성의 실체 24
제04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28
제05과 하나님의 음성을 못듣게 하는 마귀의 방해 40
제06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지켜야 할 내용 63
제07과 당신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가? 71
제08과 당신은 은사주의자인가? 관계주의자인가? 87
제09과 성령님을 만나는 길 130
제10과 "정말로 성령님 맞으세요?" 150
제11과 음성과 믿음의 관계 178

1과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영광체험의 최고봉, 대화

모세는 이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민 7:89)

>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출 25:22)

모세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회막을 덮었으며 불기둥은 지성소의 언약궤에 비춰졌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으로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 속죄소는 너무나 거룩해서 심지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레 16:2)

모세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찌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당신에게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분명 모세는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속죄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언약궤도 없습니다. 모세의 성막도 없습니다. 오직 성전은 우리 몸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성전에는 번제단도 있으며 물두멍도 있습니다.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도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성령세례를 받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물세례를 받을 것이고 우리의 육신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영혼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언약궤로 매일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불도 받고 더 나은 영광체험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들었듯이 당신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사야와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심지어 평신도 아나니아와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라는 성경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녀라면 반드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자녀인 당신이 왜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요 10:3)

자녀라면 반드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한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음성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 전해 올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겐 특별한 신호로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거나 반드시 행해야 할 때엔 마음이 평안해 진다거나 가슴이 뜨거워 진다거나 하는 그런 신호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거나 나쁜 일이라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고 마음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 음성은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음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성은 하나님과 당신만이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눅 3:22)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만 들으셨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세례요한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메시야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세례 후 하늘에서 들려 온 소리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진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인줄 알라 하셨기에"(요 1:32-33)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는 지금도 오직 한 사람만 허용합니다. 오직 한 사람을 받아 드릴 뿐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름이 온 지성소에 가득 차 있음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름이 지성소를 가득 채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낸다고 할지라도 언약궤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큰 영광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언약궤로 들어가십시오. 매일 당신만의 언약궤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는 그룹의 보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속죄소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시작할 때 어느새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로 합쳐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름이 지성소를 가득 채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낸다고 할지라도 언약궤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큰 영광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2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유익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재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사 43:7)

이미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합 2:14)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 하나님의 영광을 대한다는 것은 실로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미국으로 유학 왔을 때에는 아직 저렴한 카드전화나 인터넷 전화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부모에게 전화를 하거나 한국에 남겨둔 친구와 전화를 하기 위해 많은 전화비를 써야만 했습니다. 나 역시 많은 전화를 했는데 그 때 사용했던 전화비는 한달 식료품 구입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다는 것은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다면 어떠한 수고를 감수해서라도 들으려 했을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을 감히 쳐다 볼 수 없는 신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설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런 설교를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들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라면 반드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저들을 권면하며 위로의 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고전 14:3)

나는 성령사역자를 훈련하면서 예언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성도의 덕을 세워줄 뿐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큰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언해 주는 것은 전도에 매우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할 때에도 잡지나 보고 있지 말고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합니다. 모든 은사가 믿음을 근거로 해서 되는 것이지만 이럴 때의 예언도 믿음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고전 14:24~25)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만큼 죄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간섭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라고 항의 할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

다. 오히려 너무 좋습니다. 생활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은 보다 안정된 삶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일 3:8)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자유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99세나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은 큰 믿음이 있어 그런 몸에서도 자식이 생겨날 것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모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겐 저절로 큰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래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의 기도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일반적인 중보기도는 단순히 그 사람에게 대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중보기도의 내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그 사람에게 대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육의 기도를 드렸을 경우엔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만 알 뿐이지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종이에 적혀진 내용이나 알고 있는 기도내용만 중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한 내용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것들도 말씀해 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겔 37:9)

이러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는 설교를 할 때에 대부분 계시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계시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계시셜교는 아무런 준비함이 없이 단상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계시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배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배 때마다 조금씩 다르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찬송가를 두 번 부를 때도 있고 누군가를 일어서도록 권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때 내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일들에 대해 경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위험한 일들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거의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 물어보고 행동합니다. 목사는 원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좋지 못한 경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만날 사람과 만나지 못할 사람을 구분해 줍니다. 전화를 할 때나 전화가 올 때에도 먼저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어느 곳에 갈 때에도 안전한 여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잘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대답이 아주 엉뚱하게 흘러가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과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내게 친절한 답을 해 주셨습니다. 듣는 것도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우고 나중엔 뛰어 다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말씀을 잘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엔 이전보다 점점 더 잘 듣습니다. 어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70%만 맞아도 꽤 잘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중에는 이 말에 반대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정결과 거룩한 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정결과 거룩함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아가보입니다. 그는 바울에 찾아와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경고한 내용을 말해 줍니다.

>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때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행 21:10~11)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은 바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가보가 전한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물론 바울의 의도는 다른데 있었죠. 바울은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인줄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될 때 우리는 많은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아버지였던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꿈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꿈이든 환상이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는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

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마 2:13)

3과

하나님의 음성의 실체

사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지은 죄로 평가하자면 가장 낮은 위치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평가하자면 10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게으르고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달려든 것은 참으로 무례하고 무도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의 간구를 덥석 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세상의 음성이 시끄럽고 큰 소리라면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달콤하고 평화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우라도 그렇게 부드러운 소리를 흉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처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를 회상해 봅니다. 많은 시간을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마치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시간이 매우 빨리 지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목사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한다면 더 이상의 지겨운 설교시간은 없어질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지겨운 설교가 되는 것이며, 세상적인 것으로 교훈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기 힘든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시간을 들어도 늘 새롭습니다. 그 이상을 들어도 참아야 한다는 느낌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들어도 들어도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행복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지금도 아내와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애써 함께 가지 않아도 될 장소를 우리는 아이들 모두 데리고 함께 갑니다. 차 안은 행복의 장소로 금방 변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보단 못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도 큰 것이지만 성령님과 함께 하는 행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늘 내 편입니다. 단 한번도 내 편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좋지만 때로는 꾸지람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도 좋지만 잔소리 때문에 가끔은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도 때때로 보기 싫고 괜히 떨어져 있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눈에 집어 넣어도 안 아프다는 자녀들도 때로는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돌변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단 한 번도 귀찮아 본 적도 없고 성가신 적도 없습니다. 단 한번도 떨어져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괜히 보기 싫은 존재로 허락된 적도 없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이해가 되며 또 함께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세상 누구와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행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에도 성령님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대화를 나눠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신도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 책에는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이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향한 성령님의 배려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성령사역 자들이 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 능력을 받는지에 대해선 막연한 대답만 해 댑니다. 하지만 나와 대화를 나누시는 성령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그 방법을 세상에 알리시길 원하셨습니다. 기대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당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4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지 구분하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거룩입니다. 이것은 성경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거룩은 언뜻 보면 같은 부류의 특성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랑과 거룩은 정 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표적인 특성은 용서입니다. 하지만 거룩의 대표적인 특성은 공의입니다. 용서를 강조할 때 공의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공의만 내세우게 되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랑과 거룩은 반대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거룩의 속성으로 존재하십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십니다. 100% 사랑이 있으면서도 100%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랑 받지 못할 사람이 없지만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사랑이나 거룩 어느 한 쪽 면만 강조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어떤 부모가 사랑이나 거룩 어느 한 쪽 면만 강조한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행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균등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마귀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 어느 한 가지에만 신경을 쓰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어떤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마귀는 거룩만 강조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마귀는 그 사람에게 결코 사함 받지 못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길 것이고 영원토록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랑과 거룩 어느 한쪽만 치우쳐진 말씀이라면 그 사람은 잘못된 음성을 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마귀의 음성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으로 위장하여 잘못된 음성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망하게 하는지 구분하라

그것이 어떤 음성이든 간에 우리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음성입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는 권사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그대

로 성도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도 들었고 어떤 성도는 지금 행하는 일을 그만 두라는 말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성도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왜 교회를 떠날까요?

잘못된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권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다면 결코 성도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성도를 위한 말씀이지 성도를 망하게 하거나 잘못되게하는 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를 위해서 당장에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령 성도가 듣기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라면 그 성도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망하는 쪽으로 음성을 들려 줍니다. 때때로 사단은 열심히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많은 세상의 복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도 더 잘되고 자녀도 잘 성장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가는데 그 사람이 무엇 하러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뭣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잠시 잠깐 세상의 영화와 함께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는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환경을 통해서 구분하라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사단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 물을 멈추게 했던 것은 환경적으로 아주 적절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 물을 지팡이로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환경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동안 광야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할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단강의 물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당연하고 이치적으로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언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교회에 바쳐야 복을 받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물론 아무리 극한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예언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상황적으로 가당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그 사람이 돈이 없어도 그 삶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런 예언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는 자신의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작정헌금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깊숙한 내막을 알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그 목사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한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서 헌금을 강요 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헌금의 목적이 단순히 목사 자신을 위해 걷는 것이거나 어느 개인의 사욕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성령사역자는 집회 중 〈옥합을 깨라〉란 설교를 통해 성도로부터 수천만원의 헌금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내가 갈취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헌금의 대부분이 준비한 목사들 주머니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성령사역자는 한국에서 기도원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미국에 건너와 집회를 가졌는데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통했습니다. 돈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자의 잘못된 예언에 속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 사역자는 식당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집사에게까지 찾아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묻고선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지금 바치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성령사역

자는 가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황당한 예언을 받았을 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예언을 한 사역자가 백 번 잘못한 것이지만 현명한 성도라면 그 예언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건축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도와 주기 위해서 헌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돈을 주면 축복 받는다는 말 때문에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샤머니즘에 빠진 무절제하고 지혜가 부족한 행동일 것입니다.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구분하라

사단이 주는 음성은 우리의 마음에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절망, 슬픔, 걱정, 근심, 질투, 시기, 파괴, 폭력, 교만, 쾌락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평안, 위로, 소망, 사랑, 감사, 기쁨, 회개, 용서, 인내, 겸손과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줍니다.

사단이 주는 음성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일 3:8)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음성을 주십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눴지만 한번도 나를 위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포근하고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음성은 이와 반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 8:6)

마귀의 음성은 매우 공격적이며 강압적이고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은 항상 친절하고 인자하시며 늘 긍정적이십니다. 비록 내가 뭔가를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성령님은 결코 내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에도 내 마음이 상처 받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동화에 나오는 못된 새엄마와 같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강압하고 강요하고 강제적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마귀를 위한 것입니다.

마귀의 대표적인 언어는 늘 명령형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말씀도 명령형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언어는 나의 의지를 생각하지 않

습니다. 이 부분이 다릅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나의 마음에 불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말씀은 평안함과 이해함이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통해서 구분하라

한번은 기도를 하는데 나의 기분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이 못났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너같이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 모든 말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들려 온 말씀이 모두 성령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듣기를 얼마나 들었을까요. 갑자기 들려지는 말씀이 성경말씀과 틀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사 1:18)고 말씀하셨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요일 1:9)

이라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그런 성경구절이 생각이 났을 때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말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전해 준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교묘하고도 비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해서 우리를 죄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의 틈도 보여줘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비어있는 틈을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엡 4:27)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맞는 성경구절을 주시라고 요청하십시오. 결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결코 불경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 말씀에 적합한 말씀을 들려 주실 것입니다. 성경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열매를 통해서 구분하라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역사처럼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고후 11:14)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도 열매는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20)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만들 수 없는 열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남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처럼 가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음성은 "사랑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그 목소리가 사단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양치는 목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가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양치는 목자와 똑 같은 옷을 입고 얼굴 생김새를 그대로 닮게 하고 목소리까지 흉내를 내서 양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양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양치는 목자의 옷을 다른 사람의 옷으로 바꿔 입히고 생김새도 변하게 하고선 양들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금방 양들이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해도 우리는 그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조차도 마귀의 목소리가 성령님의 목소리와 너무도 비슷해서 절망에 빠졌던 적이 한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은 것은, 마귀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말씀을 들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사단의 열매는 언제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매는 언제나 천국에 관한 것들입니다. 열매를 보면 언제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하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20)

5과

하나님의 음성을 못듣게 하는 마귀의 방해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른 은사에 비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사탄 때문입니다. 나는 사단의 이러한 방해공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방해 때문에 여러 차례 영광체험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단의 방해는 여전합니다.

처음 사단의 방해를 체험할 때는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정결하고 거룩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언약궤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단은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언약궤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때 하나님과의 가장 긴밀하고도 영광스러운 경험을 체험하셨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경험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유혹을 당하셨는데 우리라고 어찌 그 유혹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방해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육신의 죄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도 계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 59:1~2)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두 가지 사망이 한꺼번에 닥쳐왔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사망이며 또 하나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

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사망에서 헤매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러한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요일 3:8) 마귀는 죄를 이 세상으로 불러 드린 장본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의 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요일 5:19)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것들을 탐하게 되면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세상의 정욕에 관한 대표적인 죄는 음란입니다. 그외에도 많은 육적인 죄가 있겠지만 음란은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가족을 죽이고 가정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고전 6:18)

음란을 제외한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음란은 몸에게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심각한지 아십니까? 몸에게 죄를 범한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 더러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음란은 하나님의 창조능력을 철저히 배격하는 행위입니다. 신성한 창조능력과 어긋난 모든 음란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추악한 방법의 성행위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음란을 행하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음란을 행하면 바람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음란을 행하면 도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음란을 행하면 술과 마약으로 몸을 망칠 것입니다. 생각에 음란을 행하면 저는 인본주의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음란은 하나님과 관계를 철저히 파멸하는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음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우상이 당신 마음에 들어오면 당신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우상이 당신 가정에 들어오면 당신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우상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우상이 나라에 들어오면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음란입니다. 마귀는 음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세상일에 분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분주해서는 안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분주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누가는 마르다를 가리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눅 10:40)고 언급했습니다. 마르다가 분주할 때 마르다 동생 마리아는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차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를 도와 주지 않는 동생을 향해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눅 10:41~42)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치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쁘다고 말한 사람은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바뻐도 바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여유가 있습니다.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귀로 들리는 소리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싫던 좋든 우리의 영과 혼은 육

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조정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라디오의 채널과 같습니다. 일정한 주파수를 맞추면 원하는 채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주파수를 잡아야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인 소리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덤벼들면 절대 못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한계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육체적 한계를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육체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반드시 육체의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합니다. 그러면 들리게 됩니다.

육체의 귀로 들리는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귀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무슨 소리가 들리지요? 아마도 그 소리는 당신의 육체의 귀가 듣는 소리일 것입니다. 이제 잠시 책을 덮고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육체의 귀가 그 어떠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조용히 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처음엔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작고 미세한 소리가 들려 올 것입니다. 냉장고 모토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는 지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당신의 귀가 발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의 귀는 육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지속하면 머지않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당신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때가 평안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 소리는 환청이 아닙니다. 공허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미세하고도 강합니다. 당신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게 될 때에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당신의 모든 마음을 사로 잡을 만큼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경험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사벨의 위협을 피해 사십주 사십야를 여행하며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으로 전해졌습니다.

>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왕상 19:11~12)

둘째,
마음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마귀의 방해공작은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 인간의 혼(mind)의 영역입니다.

마음의 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당신의 선입견을 사용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부모를 떠나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기거했을 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엘리 대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인줄 알았습니다. 선입견이 들어간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를 사람은 엘리 대제사장 밖에 없다는 사무엘의 생각이 그의 마음

을 사로 잡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똑 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니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줄 알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일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선입견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에 고정시켜 버립니다.

영성훈련을 인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저 사람은 이미 나의 음성을 듣고 있느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엔 성령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해서 입니다.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자신의 소리같기도 하고 환청같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선지자의 음성으로 알았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한번 지나가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더 어렵습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잡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직접 1:1 영성훈련이 필요합니다.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

고 훈련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영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소리와 구분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론 사단의 소리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영성훈련에 참여해서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여유가 없는 사람은 조급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을 갖게 함으로써 영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항상 육의 기도에서 머뭅니다. 늘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하고 서둘러 떠나는 사람입니다. 조급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격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조금만 늦게 말하거나 지체하더라도 참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선 늘 “빨리빨리”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여유 있는 사람은 늘 정리된 삶을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물론 기도 역시 더 깊은 수준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길 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 "그의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레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네페쉬)으로 산란케 하시리니"(신 28:65)

조급한 사람은 '마음으로 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 조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조급한 마음은 없어지고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사역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조급한 사람은 사랑을 보이기 보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합니다. 조급한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잠 14:29)

악한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

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악한 마음 역시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물론 누군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겠죠.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으로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눅 22:3)

예수님의 12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덕분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전했고 제자를 잘 삼고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을 때 예수님을 좇아 다녔던 사람은 대충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오천 명을 먹이셨을 때 그 숫자는 이스라엘 성인들의 숫자였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 그리고 나이든 사람은 그 수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관례였습니다. 출애굽 할 때에도 60만이라고(출 12:37) 기록했을 때에도 장정 수만 기록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출애굽 했던 이스라엘 인구를 대략 2백만 명에서 3백만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한 것은

굉장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로마정권을 누르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정권을 세울 왕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2제자 중에서 이러한 마음을 먹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싸웠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싸움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로 인해 빚어졌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마 20:21)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가룟유다 역시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좇다 보니 헌금도 제법 모였을 것입니다. 또한 12명이 사역을 하려면 재정 지출도 복잡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재정을 담당한 장로는 믿음과 정직과 신용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만 돈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도요한은 가룟유다를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요 12:6)고 말했습니다.

어떤 교회의 재정 담당 장로는 교회 행사를 위해 사용되는 떡을 위해 일정한 돈을 받고서 특정한 떡집과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건축회사가 연관될 때 그들을 통해 얻게 되는 수입은 가룟유다의 방법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악한 마음입니다. 가룟유다만 예수님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사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팔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듣겠다는 위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사모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의지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는 것은 사모함입니다. 의지가 아닙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지는 사모함과 다릅니다. 의지에는 인간의 야망이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 의지를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모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그 사모함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성령사역자를 훈련시킬 때 그 사람의 성격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 사람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모함이 있는 것인지 살펴봅니다.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사역자가 되려고 하지만, 의지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사역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성령사역자를 훈련시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미 하나남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안간힘을 다해 열심히 영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다가 중도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듣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보다는 사모함입니다. 의지는 인간의 혼(mind)에 국한 된 것이지만 사모함은 영(sprit)에 국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혼적인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육적인 욕망은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혼적인 야망은 지정의(지식, 감정,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과 혼을 완전히 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셋째,
영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직통 전화가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다 이뤄진다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함에 있어 전화로 통화하는 정도의 수준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전화로 통화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은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신을 벗어야만 했습니다(출 3:5). 여호수아 역시 모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수 5:15)

우리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 영적예배가 무엇인지 말해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 4:24)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기도도 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면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영적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의 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충격적인 음성은 들을지 몰라도 사랑스러운 대화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산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산만하게 만들어서 영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묵상하게 되는데 마귀는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산만함을 줍니다. 산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보다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선 집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산만함은 그러한 집중을 흩어 버립니다. 원래 〈산만〉이라는 단어는 〈집중부족〉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영의 기도를 하는 도중 얼마나 자주 산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지 모릅니다. 한참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않던 옛날 일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산만함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산만한 생각이 찾아올 때 그것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곤 했습니다.

자녀문제, 재정문제, 건강문제 등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걱정거리가 머리를 뱅뱅 돕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사탄 중 어느 것 한 가지만을 선택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속에 잡생각이 들어와 산만하고 분주한 마음이 들게 되면 이것은 사탄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이며 사탄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산만한 생각은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만한 생각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최대한 듣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은 24시간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성령님의 음성은 라디오 채널과도 같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거나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항상 그 채널을 고정해야 합니다. 나는 그 채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면 당신에게도 채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부분일수도 있고 어떤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의 고유한 성격과 생김새를 가지고 있듯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소리라는 것이입니다.

전통적인 형식과 방법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막 7: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수님 시대 때도 사람들의 진실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나 봅

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의 말(사 29:13)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은 똑 같은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막 7: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말은 전통을 말합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전통에 의해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형식과 방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며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전통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전통이 만들어 놓은 자신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사람들이 가르쳐온 것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 저에게 악신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삼상 16:14)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삶이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불순종이라는 것이 어느정도로 심각한 죄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배반하는 행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로 나눠집니다. 나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적이 있었는데, 열심히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었더니 친구녀석이 결국엔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봤을 때였습니다. 몇 번 그런 경험을 당하고 나니 그 친구에게는 조언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

는 지금이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저런 구체적인 일들에 대한 성령님의 뜻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에 대해 전적인 순종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는 나의 아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론 나의 생각이나 의사가 표현되지 않은체 무작정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요즘 아내가 남편의 말에 무작정 복종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듯이, 성령님께서도 무작정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대화를 나눠보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모두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내 속에 전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무엇보다 순종을 먼저 배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교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우러 나옵니다.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는 그 간격이 너무나 크고 넓어서 크나큰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마치 다윗과 사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듯이 말입니다.

6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지켜야 할 내용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읽어도 나쁠 것은 없지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그 음성이 계속적으로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면 그 날은 당신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노력을 하면 들을 수 있는 것이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돈을 써서 누군가로부터 얻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육과 혼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긴 하지만 또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경험하신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음성을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성은 일방통행이지만 대화는 양방통행이기 때문입니다. 음성을 듣는 것은 그것이 인격적인 대화가 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당연히 인격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잘 지킨다

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날이 갈수록 자연스러워 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한없이 깊어만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나를
버려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대화를 나눌 때는 더없이 당신 스스로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당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교만을 없애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은 채 자신의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면 짜증이 납니다. 나도 좀 말을 하고 싶은데 도무지 들어갈 틈이 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만을 내 세우는 사람은 올바른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무시해 버립

니다. 진지하게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짜증만 냅니다. 아내의 의견이나 생각은 묻지도 않고 남편 맘대로 결정하고 명령합니다. 아내라는 존재가 그저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런 남편은 올바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남편과 대화를 잘 나누는 것 같은데 실상은 마음이 딴 곳에 있습니다. 간혹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 도중에 갑자기 딴 얘기를 꺼내곤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견이나 생각을 듣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합니다. 당신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느끼게 되겠지만, 자꾸 내 말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나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내가 반 반씩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훨씬 말을 많이 하고 성령님께서는 대부분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성숙해지면 제법 성령님과 나와의 대화가 반 반씩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성숙할수록 성령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용하지 말라

좋은 남편은 아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밥하기 싫어서 결혼한 남자는 좋은 남자가 아닐 겁니다. 빨래하기 싫어서 결혼하는 남자도 좋은 남자는 아닙니다. 아내를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남자는 나쁜 남자입니다. 이것은 아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배우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내는 남편의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남자를 선호합니다. 미국에서는 남자의 지위가 세번째 입니다. 첫번째는 여자, 두번째는 개, 세번째가 남자입니다. 가만히 보면 남자는 돈 버는 기계처럼 느껴집니다. 집에서는 잔디 깎는 기계처럼 보여집니다. 자녀들에게는 심부름이나 하는 하인같이 생각됩니다.

어느 집에 방문했더니 아빠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고 엄마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중학생 정도 되었는데 TV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아빠가 퇴근하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가 들어 온 것을 모른양 계속해서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곳에 없었더라면 아무 일이 없었을테지만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빠가 아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야, 임마! 넌 아빠가 와도 인사도 안 하냐!.” 이 말에 아이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Hi.”

그 아이는 아빠를 이용한 것입니다. 너무 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아빠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는 단순히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아빠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이러한 문제가 너무 심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땐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뭘 물어 볼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운 분이셔서 항상 묻는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게 필요할 때만 대답을 들으려 하는 저를 나무라십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묻고 대답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을 느끼는 인격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곧 바로 성령님께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뭔가 필요해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고 또 저도 성령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의 온 종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했던 말을 또한 적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함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와 대화를 참 많이 나눕니다. 함께 있을 동안은 항상 대화를 나눕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 외에는 거의 대부분 성령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성령님께서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내와 대화 많이 하는 것을 장려하십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장려하십니다.

배우자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1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밥을 해 주는 아내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 빨래를 해 주는 아내에게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함께 사는 사람끼리 뭐 그렇게까지 감사함을 느껴야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사니까 더욱 감사함을 느껴야겠죠. 그리고 감사함을 늘 표현해야겠죠.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면 성령님의 품 안에 묻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내와 대화를 많은 나눌 때도 아내와 제가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아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제게 보여주는 헌신과 사랑을 그냥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는 아내를 저는 결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위하라

사랑을 하게 되면 배우자를 위해 삽니다. 몇 년 살다보면 그것이 점점 식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다 자녀까지 생기면 배우자에 대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녀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게 교인이 천명이 있을지라도 제 사랑은 주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교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때 교인들도 더불어 사랑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게 자녀가 셋 있습니다. 나중에 또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세 명입니다. 결혼한 지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제가 제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모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저는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겠는데 남편을 위해선 못 죽겠더라고요." 제 아내가 뭐라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아내의 말을 평생 잊지 않고 삽니다.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내는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말을 했답니다.

저는 교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내의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한 동안 아내에게는 제가 사랑 1순위였고 주님께서 2순위, 자녀가 3순위였는데, 영성훈련을 하고 나서 그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1순위가 주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하면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령님과 대화를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뭔가

를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필요한지 묻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대화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금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7과

당신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가?

워킹위드바이블 카페를 오픈하여 지금까지 수 년 동안 매일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에 관심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카페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카페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블로그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처음엔 별 것 아닌 것처럼 시작했지만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글을 퍼가고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부흥회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2년 사이에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낼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얼마 있지 않아 블로그의 글들이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컴퓨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게 와서 블로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물었기 때문에 블로그의 위대함을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내 사역도 금방 커지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사역은 블로그를 통해서 전파되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우리 사역의 독특성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역은 직접 사람에게 안수해 줌으로써 성령의 불이 전이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성막기도를 함으로써 그때 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따라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방언함으로써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안수함으로써 전이해 주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블로그를 통해서는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글을 인터넷에 올려 놓으면 '내가 쓴 글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겠다'는 생각으로 카페를 만들어 글을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이렇다할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카페를 알게 되었는지 참으로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카페에 방문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매우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략 2개월이 지났을 때 회원수는 20명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원 중에는 4명 정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무울이라는 분은 3주가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St. clemens1 이라는 분도 아주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카페를 홍보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도무지 길이 없었습니다. 무슨 수로 카페를 알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다른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효과적일까 찾아 보았고 몇 군데 글을 올릴만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성

령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듣는 3가지 조건'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보통적으로 이 글을 읽는다면 아마도 30분은 족히 걸릴 정도의 긴 글이었습니다. 글을 올리면서도 '아마도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이 읽지 않을거야'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카페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페의 글들이 너무나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글을 읽을 사람들의 반응은 '속히 후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거나 속 시원하게 궁금증을 해결받지 못했는데 이곳에서는 너무나 시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실 LA에서 훈련을 했을 때에도 훈련교재를 읽은 사람들이 "목사님, 책을 읽을 때 뭔가 느껴지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어요"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내게 훈련을 받고 있으니 아부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거겠지'란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느껴지는 것은 마치 거짓말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카페에 들어와 글을 읽는 사람들의 반응이 LA의 훈련자들의 반응과 같았습니다. 그것도 한 두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등업을 신청하거나 가입인사를 남기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훈련자 영성일지" 메뉴에 가 보면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수회원이 아니면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나중에 우수회원이 되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당신은 또 한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서 가장 크게 성령사역을 하는 교회를 통해 몇 개월 훈련을 받았어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우리 카페를 통해서 2주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멀리 호주에 있는 한 자매님도 불과 2주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상을 보기 시작했고 숨겨놓았던 죄악들이 들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친히 저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의 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손과 몸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아파오는 느낌도 있습니다. 불처럼 뜨겁게 달아 오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손이 마비가 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저들이 손을 얹어 안수했을 때 평소에 경험해 보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지금까지는 남의 탓으로 여겨졌던 마음이 이제는 '모두 내 탓이다'란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격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교만한 마음들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 아내가 성막기도를 할 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헤드셋으로 성막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기를 붙잡고서 합니다. 내 경험상 전화기를 붙잡고 있을 때 마치 직접 안수한 것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헤드셋으로 통화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부음

이 전해진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달라스 호텔에서 아내와 통화를 했는데 30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그때는 편안하게 누워있었습니다) 내 손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성령님의 불이 많이 필요했던가 봅니다. 그동안 아내는 아침 저녁으로 쉴 시간도 없이 하루에 거의 10명 정도의 훈련자들에게 성막기도를 인도하기도 하고 전화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세 아들(8살, 5살, 3살)에게 밥주고 놀아주는 바쁜 생활에서 말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집안 청소까지 다 아내가 합니다. 늘 내가 나쁜 남편인 것을 확인해 주니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님의 음성듣는 법' 메뉴 안에 '하나님의 음성듣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치 점쟁이가 점을 잘 치듯

이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복권을 살 때 1등 번호를 알려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필요한 내용을 하나님께 여쭤 보기만 하면 다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계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보다 깊은 관계형성을 위해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회개를 요구하고, 육적인 사람일 때는 방언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합니다.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대화를 나눠보라고 권유하고 성령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 제일먼저 훈련자들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능력을 사모하여서 늘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교만해지는 마음이 겸손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간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가?" 란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으면 합니다. 만약 그 답이 "능력을 받아서 멋진 사역을 해 보고 싶다"라면 스스로를 돌이켜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함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서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로 시작된 관계는 점차적으로 이상하게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나는 성령사역자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타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사역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사역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참 잘 듣습니다. 이 분은 영서(Spiritual Writing)도 잘 쓰십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서 그분이 음성을 듣는 모습을 지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으면 될 것을 왜 저렇게 힘들게 음성을 들으시나?' 고 의아해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분이 내가 어느 정도 음성을 잘 듣는지 시험을 했습니다. 이미 그 분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5섯명 정도를 아는데 목사님이 그 중 한 분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자에 앉아 보라고 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꿈꿈을 내게 들려 주었습니다. 나는 꿈을 듣고 난 즉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성령님께서 줄줄 들려주시는데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관계보다는 능력 때문에 찾아 왔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는 은사를 얻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분들에게 〈관계〉만을 가르쳤습니다. 사

람들은 다른 사역지에서 하는 것과 많이 틀리다면서 이상해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평생 부르짖는 것만 배운 사람에게 영의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매우 빠르게 발전했으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유의 은사나 기타 은사는 아주 기본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발전해 가는 것을 보면서 나부터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뭔가 얻기를 사모해서 오는 사람들은 시시하다며 떠났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며 울부짖음이 없는 집회에 재미가 없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관계〉를 배우지 못하고 〈은사〉만 받아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은사〉만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은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또 다른 능력자에게 찾아가 자신에게 없는 은사를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의 사역은 〈의의나무〉를 키우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나무를 만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나보다 남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음성은 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오래 전에 미국에서 크게 성령사역을 행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살았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집회에서 은혜를 체험한 한 고등학생을 통해 그 여인의 업적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캐트린 쿨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젊었을 때 천막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급기야 하나님의 사역을 뒷전에 물러두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죽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한번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삼손을 죽기전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그녀를 통해 엄청나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회 도중에 "조용히 하세요"란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조용할 것을 요구한 이유는 성령님을 인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중들은 그녀의 말대로 조용했고 성령님의 능력이 홀에 가득히 운행하였습니다. 그러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치유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날 집회에서는 캐트린 쿨만 여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하라고 요구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그것 조차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에게 “제발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올갠 소리도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합창단의 노래소리도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큰 홀이었지만 그녀가 마이크 없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어도 모두 들을 수 있을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그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캐트린 쿨만 여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뭘 원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나요?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에 가장 먼저 사모해야 할 부분은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욕심이나 당신의 마음이 먼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격적인 성령님

만일 당신이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인격적이

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이나 하는 분정도로 생각합니다. 불과 30년 전만해도 성령님을 표현할 때 '인격체(Him)'가 아닌 '사물(It)'로 표기했습니다. King James Vision에서는 성령님을 '그것(It)'으로 표기하고 있음에 주의하십시오. 얼마나 경악스러운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Power)'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은 "성령 받아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성령님은 우리가 던져서 받을 수 있는 공(Ball)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부인을 던져서 자식에게 전해 줄 수 없듯이 성령님을 던져서 누군가에게 집어 넣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전혀 새로운 내용을 당신에게 전달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당신이 "저 목사는 지금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내용을 말하고 있음이 틀림없어"라고 생각한다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코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인격적이십니다. 수퍼 컴퓨터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와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부인한다면 성경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보다 더 정다우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모든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준다 할지라도 성령님보다는 못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들으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전혀 지루해 하지 않으시며 항상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내어 주십니다. 언제라도 당신이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땐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그곳에 계십니다. 항상 당신 옆에서 당신이 말을 꺼내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잘못된 암호입니다. 잘못된 코드입니다.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땐 단순히 “성령님 내가 이 편지를 보내야 할까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바른 코드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막연하게 여쭈는 말에 잘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막연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아내에게 “여보, 뭔가 내게 할 말이 있지?”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는 그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때문에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상황도 없이 단순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필요할 때만 성령님께 묻습니다. “오늘 예배에 몇 명이나 참석할까요?” 이런 질문은 성령님께서 황당해 하십니다. 1

주일동안 단 한 차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물어 본 말이 그런 말이니 얼마나 황당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중에는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집에 와서는 "어서 가자고… 친구들이 기다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화는 그 주체가 '나'만이면 곤란합니다. 항상 '나'와 '상대방'이 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대화를 참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무례하지도 않으시고 혼자서 대화를 독차지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잘 들어 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성령님의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것 중 가장 독특한 면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에 비해 지혜도 부족할뿐더러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많

은 부족함을 안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학생과 유치원생이 정치를 논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항상 내 말을 끝까지 들어 주십니다. 너무도 잘 참아 주십니다. 그리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엄청난 지식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각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옆에 데리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고 무역에서도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날 것이고 어떤 다리가 무너져 내릴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고 어떤 남자가 내 아내를 꼬시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니까요.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눈이 오는지 알게 되면 시민들은 너무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전 세계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게 되면 금새 그 나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진이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도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언제 큰 지진이 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날짜만 확실히 안다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수많은 예언자들은 무엇을 들었던 것일까요?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지 실감합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틀렸습니까?"라고 따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일깨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만보다는 겸손함을 주셨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잘 맞추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교만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99%를 맞춰도 1%를 맞추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내게 "정결과 거룩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성령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과 거룩'입니다. 보다 나은 음성, 보다 정확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정결과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이제 당신 스스로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리셨습니까? 그 마음이 내가 말한 마음과 같은 것입

니까 ?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부인이 남편의 능력만 원해서야 되겠습니까? 자식이 "내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좋아한다"라고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원하는 것도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와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탐나거나 갖고 싶은 것은 부끄러운 사모함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 남편이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보잘 것 없어도 나를 낳아 준 부모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울었을 때 나와 함께 우셨던 성령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우울하고 힘들 때 내게 힘 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늘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 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언제나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성령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8과

당신은
은사주의자인가?
관계주의자인가?

LA에 어떤 성령사역자가 왔습니다. 한국의 모 유명한 기도원 원장이라는 약력이 있어서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제일의 찬양사역자가 찬양인도를 함"이라는 타이틀이 걸려 있어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LA에서 신유집회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회인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했더니 예쁜 드레스를 입은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짐작으로 성령사역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었고 '한국 제일의 찬양사역자'의 찬양인도가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며 열심히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혼자서 키보드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은혜스럽다기 보다는 안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50년대의 소위 '뽕짝'스타일로 찬양을 인도했기 때문도 있었지만 아주 오래된 키보드에서는 요즘 교회에서 듣는 그런 사운드가 아니었습니다. 땀 때문에 흘러 내리는 안경을 치켜 올릴만한 겨를도 없이 손으로는 연주하고 입으로는 찬양하며 사람들 얼굴을 쳐다 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안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찬양이 어렵사리 끝나고 예쁜 드레스를 입은 여자분이 강단에 올라 왔습니다. 시작을 하자마자 대뜸 나를 가리키면서 "목사시죠?"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유독 나만 가리키며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했던 말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평안하시겠군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돈'얘기가 왜 나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

분에게 헌금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는 몇몇 분들도 거의 사기를 당할뻔 했는데, 심지어 어떤 집사님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찾아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돈을 바쳐야 모든 것이 잘된다"고 하면서 "지금 5천불을 바치라"고 했답니다. 지금 당장에 천불 아파트비도 없어 쩔쩔매고 있는 사람에게 5천불을 바치라고 했으니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아파트세를 얼마나 내고 있느냐?"고 묻더랍니다. 천불 낸다고 했더니 "그럼, 2천불만 내라"고 하더랍니다. 물론 그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어 보니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5천불을 수표로 끊어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사역자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다음날 은행에 가서 수표정지를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여자는 성령의 능력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큰 교회에서 강사로 초빙하는 것을 보면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여자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한국으

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게 와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별 이상한 기도원이나 집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을 치유한 대가로 거둬드린 헌금을 가방에 넣어서 혼자 챙겨먹는다는 말도 있고, 별 희한한 약을 만들어서 고액을 받고 파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신실하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기도원도 많습니다. 어떤 기도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내 쫓지 않고 누구든지 와서 먹고 자면서 예배를 통해 영혼이 회복되도록 돕는 곳도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병든 자를 치료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기도원이나 집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스스로를 위해 사역을 행하신 것이 아니듯이 성령사역자는 마땅히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위해 성령님의 능력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집 한 칸 마련하지 않으셨으며 어머니를 모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을 행사했다면 왜 근사한 집 한 채 어머니께 마련해 드리지 못하셨겠습니까? 오늘날 부유하게 사는 성령사역자들보다 주님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던 것일까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결코 자신을 위해 사용

하지 않으시겠다고 처음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단 한번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배부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물위를 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언급되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냉정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 “포도주가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요 2:3-4)

처음 거절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결코 능력을 행치 않으시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부탁이었지만 어머니는 곧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적을 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바로 들어 주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을 통해 빈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시고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을 위한 능력행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 한번도 행치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당시에 살아 있었다면 당연히 성경은 요셉의 이름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아내인 마리아에게 헌신적인 요셉이었으며 자신의 핏줄도 아닌 어린 예수를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십자가 주변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요셉은 십자가 앞에 나타났을 것이고 다른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다면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죽은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죽은 아버지를 못 살릴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는 나사로보다 아버지 요셉이 훨씬 소중한 사람이었을 것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곳에 요셉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아버지에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요셉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면 죽은 당신의 아버지를 살려 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고 싶을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과 나의 생각과는 달리 결코 자신의 능력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령사역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명예를 얻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쳐 주면서 들어올 헌금을 생각합니다. 예언을 해 주면서 점치는 값을 받으려 합니다.

>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삯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미 3:11)

오늘날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처럼 자신을 위해 팔아먹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성령사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가증하게 보입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은사는
선물이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ift'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누군가 내게 선물을 주면 그것은 이미 내 것이지 그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한번 받은 선물이 두번 혹은 세번의 선물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선물을 받으려면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줘야 합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받은 은사는 평생토록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라는 것이 선물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생일날 꼭 받는 것이 있다면 생일케익일 것입니다. 생일 케익은 생일날 먹는 것입니다. 먹다가 냉장고에 넣어 놓는다고 해도 1주일도 못 가서 맛을 잃고 맙니다. 은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한번 받은 것은 일시적인 은사밖에는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받은 은사를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은사를 받기가 어렵지 그것을 유지만 한다면 은사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령사역자들이 은사를 받다보니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받은 은

사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은사를 잃고 만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전에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예전에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참으로 놀랄만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잘 유지하지 못해서 받은 은사가 없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안수를 하게 되면 금방 이전의 은사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딤후 1:6)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디모데가 받은 안수는 바울의 안수함으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안수를 통해서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가 회복되어도 막상 그 은사를 사용할 곳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도 교회에서 드러내 놓고 은사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잘못된 예언과 잘못된 은사 활용으로 인해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목사보다 더 영적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저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며, 목사가 가진 은사가 저들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은사자를

배척하는 행위는 마녀사냥과도 같은 추악한 행위입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은사자를 배척하기 때문에 은사자가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도 교회에서 배척당하지 않으려고 은사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사람들 이마에 저들의 죄명이 써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상황적으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본인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은사를 거둬가 달라고 간절히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 주셨고 그 집사님에게는 더 이상 그 은사가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력때문에 받은 은사를 잃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 사람 중 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런 사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은사가 있어서 교회로부터 배척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은사없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은사를 우습게 여기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나도 왕년에 은사깨나 있었지요... 그런데 성경말씀이 최고예요"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깨나 한다는 사람을 만나보면 다들 예전에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사는 사실상 아무 소용도 없고 성경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땅바닥에 내 던진 사람들이 도리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은사를 배척하는 사람으로 돌변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을 들려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한번 비췸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예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히 6:4-6)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다고 할찌라도 그 사랑이 예수님께 다시 못질하는 사람에게는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얻고서 천국의 비밀을 알았던 자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와 능력을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땅바닥에 던져 버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단코 구원의 행렬에 끼지 못할 것입니다. 저들의 행위는 마귀의 것과 같은 것이며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선 뼈를 깎는 회개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습게 여기는 행위를 금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행위는 마귀의 짓과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의 교만을 버리고 지금 당장 십자가를 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면류관은 저들 머리에서 벗겨질 것입니다. 오직

저들에게는 지옥의 면류관만이 씌여질 것이며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안위를 위해서 과거의 은사를 버린 사람은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항상 '과거'를 살게 합니다.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전에 나도 은사깨나 있었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So what?"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라고 해석되는 말이지요. 예전에 돈이 많았는데 지금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건강했는데 지금 병든 몸이라면 병든 몸인 것입니다. 예전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간음하다가 쫓겨나 이혼받은 상태라면 버림받은 몸입니다. 예전에 은사가 있었지만 지금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과거'는 과거일뿐 그것이 현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미래를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은 철저한 이중인격자와 같은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평이 하늘을 찌르고 불만이 온세상을 태웁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은 '과거'가지고 '현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의 뜻은, 현재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과거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없는 것이라고 떠벌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성경이 최고야" "나도 예전에 병도 고치고 했는데 다 쓸데 없어" "나도 예전에 부자였는데 가난한게 더 좋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당장 그 사람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를 섬기

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 입에서 과거를 현재보다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여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천국이면 그 사람은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옥이면 그 사람은 지옥에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천국이 오늘의 천국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 과거의 지옥이 오늘까지 지옥으로 살게 하지도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기꾼 여자는 과거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여자는 과거에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기도원도 차리고 많은 좋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현재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사에만 충실했고 그 은사가 영원히 자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받은 은사가 평생토록 남아 있을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자기자신의 사리사욕에 대한 것들로 채워지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가지고 있던 은사가 사라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손만 얹으면 능력이 나왔는데 어느 날부터 그 능력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사라진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을 것입니다. 점점 사람이 오지 않게 되자 이제는 사람을 찾아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국방방곡곡을 다니면

서 자신의 옛날 능력을 거짓으로 꾸미며 능력행세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멸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거짓으로 능력행세를 해도 조금도 죄스럽지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대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을 바치라고 하니까 예전보다 더 많은 수입이 생깁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다른 것이 타락이 아닙니다. 과거를 가지고 현재까지 살아가려는 모습이 타락인 것입니다. 마귀가 옛날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여자도 예전의 영광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과는 달리 이미 지옥행 티켓을 받은 것이고 그 여자도 마귀가 받은 것과 같은 것을 받지 않았다고 누가 생각인들 하겠습니까?

이처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얽매어 살게 합니다.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과거의 영화만을 생각나게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치욕만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귀는 과거의 잘남을 생각나게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만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귀는 과거의 의(righteousness)만 생각나게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죄(sinfulness)만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함께 하는 사람은 과거의 영화로움으로 현재를 살기 때문에 늘 불평불만만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함께 하는 사람은 과거의 잘남으로 현재를 살기 때문에 여전히 교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과거의 치욕을 생각하며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오늘 더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얽매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살고 있습니까? 선물은 지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선물을 받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지금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과거의 선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은사는 과거의 선물이 아니라 현재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과거에 연연하며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과거에 얽매어 살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은사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신유의 은사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갈망하고 귀신을 쫓아 낼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금가루 금이빨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기 위해 불나방처럼 이리 저리 쫓아 다닙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와~”합니다. 사람들이 “주여~”하며 울부짖는 곳을 찾아 다니며 짜릿한 느낌을 갖습니다.

나도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내 아내의 큰 언니가 심한 관절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큰 언니가 사는 곳 근처 도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나 관절염이 심해서 계단을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운전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숟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큰 언니를 보면서 내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내 손으로 큰 언니의 병을 고쳐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신령한 목사님이 그곳을 방문했고 큰 언니는 그 분에게 안수를 받고 관절염이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나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1년쯤 지났을 때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에 저절로 은사가 주어졌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그 목사님 때문에 은사를 받게 되었다고도 하고, 큰 언니의 남편(목사)의 안수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도 하고, 개척할 당시 함께 하셨던 연로하신 목사님의 아내되신 사모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처럼 나를 위해 그 동안 중보기도를 해 준 분들의 도움으로 은사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LA로 와서 모 성령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한번은 목사님들만 모이는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총각 전도사님이 기타를

들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어찌나 찬양을 잘 인도하는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그 전도사님이 슬리퍼를 신고 은혜롭지 않은 옷차림(?)으로 찬양을 인도했지만 목소리와 찬양의 깊이가 너무나 조화가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서 은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을 나가거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성령님.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성령님은 "저가 자신을 위해 찬양하고 있느니라. 그 소리가 내게 지겨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찬양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아내는 "성령님 말씀이 맞으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찬양할 때 사실 나는 역겨움이 있었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 다시 한번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땅바닥에 누워서 한동안 쉼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올리브유를 이마에 발라 주면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게 했습니다. 찬양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어서 나가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왜요?"라고 시비조로 물었습니다.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자꾸 나가라고만 하시는 성령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

다. 겉모양만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나 나갔습니다. 이번까지도 불순종하면 한대 얻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밖에 나갔더니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안 들어가시고 왜 이곳에 계셔요?"라고 했더니 "하도 시끄러워서 나왔어"라고 하시지 뭡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성령집회를 싫어하셨습니다. 나중에 이곳에서 일했던 전도사와 우연찮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나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성령님께서 그 성령집회를 인도했던 목사님에 대해 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마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도 없는 끔찍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내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잊어버리고 몇 개월을 지냈는데 그만 그 성령집회에 도움이로 있었던 전도사의 말을 듣고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지 깨닫게 되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 성령집회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로 돈을 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곳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헌금을 바친 사람들 중 몇 사람을 압니다. 모두 아파트비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거금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돈으로 자신의 학비를 내고, 밀린 크레딧카드 빚을 갚고, 자동차를 사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밀린 빚을 다 갚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울분이 터져 나

오지 않습니까? 그 목사가 밉지 않습니까? 나 또한 그 목사가 밉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영리를 위해 사용한 목사가 밉습니다.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은사주의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은사주의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은사주의를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은사만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은사만 있으면 뭣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사는 소중한 것이지만 은사주의는 필요악입니다.

은사주의자는 은사 절대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은 최고이고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뒤쳐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는 교만을 낳습니다. 은사주의 교회를 참석하면 교만만 배우게 됩니다.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만나면 제다 교만합니다. 목사부터 교만하고 전도사도 교만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교만합니다. 완전 교만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배우기 위해 사람들은 벌떼처럼 몰려 듭니다. 이것은 완전히 “주여, 나를 교만하게 하소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교만을 배운 사람들은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교만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그 사람들은 서로가 겸손하다고 칭찬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하고 늘 칭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 아이에게 “확실히 은사를 가지고 있음”이라는 합격증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인 나도 무시합니다. 지금도 무시합니다. 글쎄요……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아이가 나보다 나은 것 같지 않은데 그 아이는 여전히 나를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그렇게 남을 무시합니다. 교만한 자녀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은 거의 교만합니다(주님과 함께 살려고 작정한 사람이나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물론 다른 복잡한 이유(공부, 직장, 질병 기타 등등)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맘에 흡족한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에 가면 결혼하지 않는 노총각과 노처녀들이 엄청 많습니다. 서로 짝지어주면 좋겠는데 서로 맘에 안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우스개소리로 "나같은 남자만 찾으려니까 없지... 눈 높이를 좀 낮춰"라고 말합니다.

은사주의자는 은사를 계급처럼 생각합니다. 은사를 한 개 가지

고 있는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보다 계급이 높습니다. 물론 두 개 있는 사람은 한 개 있는 사람보다 더 높습니다. 목사님은 최고로 많은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일 납니다.

은사라고 해서 똑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유의 은사가 최고로 큰 은사에 듭니다. 방언의 은사는 은사 축에도 못 낍니다. 은사주의 교회는 은사로 교회의 질서가 형성됩니다. 교회 들어온 지 한 달이 채 안 되었어도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계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 수년을 교회에 충성했어도 은사가 없으면 언제나 끄트머리 신세입니다.

은사주의가 계급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은사를 통해 계급이 형성됩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더 은사가 많을 경우엔 자녀가 부모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은 은사주의가 빚은 가장 큰 실수요 결점입니다. 이처럼 은사주의는 악을 만듭니다. 은사는 귀한 것이지만 은사주의는 악입니다.

교회가 은사주의로 변하는 것은 교회를 악의 소굴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능력주의로 바꾼 지 오래되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우대를 받습니다.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가지 언어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을 제치고 승진하는 시대입니다. 영어를 못하면 승진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제는 골프도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여자를 잘 꼬시는 사람을 모두가 싫어했는데 그것 조차도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 진실해 보였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은 있던 친구도 떠나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세상을 능력주의로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능력이 없어도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박사학위도 있어야 하고 말씀도 잘 전해야 하고 적어도 대머리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돈 못 버는 남편은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은 모든 학생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는 선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식은 부모도 싫어하는 세상이 언제 도래할지 누가 압니까? 벌써 그렇게 되었다고요?

은사주의는 마귀가 만든 것입니다. 교회가 은사주의로 변하면 안됩니다. 교회가 능력주의로 변해서도 안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교회는 마귀의 교회입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우대받는 교회는 마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보다는 인격을 존중해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은사가 없어도 그 사람의 진실됨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관계주의자가 되고 싶습니까?

당신이 관계주의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 스스로 은사 있는 사람을 우러러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스스로 '난 능력이 없어서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심하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은사주의 교회를 좋아합니다.

'은사를 받아서 멋지게 신앙생활 좀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은사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를 받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질뿐더러 덤으로 은사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내용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 중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하여 집을 나간 이야기인데요. 당신 생각에는 큰 아들과 막내 아들 중 어떤 아들이 '탕자'같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한 생활로 더 허비해 버린

막내 아들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명령에 착실하게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온 큰 아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탕자'를 막내 아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막내 아들이 아닌 큰 아들을 탕자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내 아들을 탕자로 보는 이유는 '나쁜 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막내 아들은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신에게 물려질 재산을 달라하여 그것을 다 허비한 죄가 있었고, 아버지를 잘 섬기지 않고 집을 나간 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막내 아들은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다 〈나쁜 놈〉이라는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막내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눅 15:24)

큰 아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근심할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좋아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

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혹 큰 아들의 모습이 당신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려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충성하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고, 열심히 친교 준비를 하고, 열심히 헌금을 내고, 열심히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아버지께서 "너 지금 뭐하고 있니?"라시며 마치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당신의 마음이 어떨까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큰 아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고 저렇게 하면 아버지가 싫어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큰 아들이 생각해야 했던 것은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반기면서 온갖 좋은 것들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크게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화가 난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따졌습니다.

>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

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눅 15:29-30)

그때 아버지는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네 것이로되"(눅 15:31)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아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큰 아들은 노동자의 입장으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품 삯을 바라면서 일했던 것입니다.

큰 아들이 품 삯을 바라고 일하며, 노동자의 입장으로 아버지를 섬겼던 마음은 오늘날 은사를 바라고 교회에 다니고 능력자만이 우대를 받는다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비록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허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시켜 드렸지만 오히려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결국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자녀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큰 아들과 막내 아들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큰 아들처럼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아들처럼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품에 안기어 용서해 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더 아름답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거리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눅 18:11-12)

이제는 죄인의 기도를 들어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눅 18:13)

이제 당신의 기도를 들어 보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습니까? 아니면 죄인의 기도와 같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모든 선한 행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신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만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세리는 멸시천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놓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다면 당신은 큰 아들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죄인의 기도와 같다면 당신은 막내 아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한 선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신있게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보였던 자랑거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행한 선한 일들로 인해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만큼 삯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삯 주시는 분이 회사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삯 줄 분의 의도를 바로 알아채지 못하면서 하는 수고는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행한 일을 자신있게 드러내었던 큰 아들의 잘못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큰 아들 생각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전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품에 안기어 "죽을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청하는 자식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큰 아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선한 행실을 드러내놓고 자랑거리로 삼는 큰아들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행실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자신 스스로는 죄인처럼 기도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고 자신의

모습이 바리새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겉모양만 하나님의 자녀이지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혼자서 의로운 척 온갖 행동은 다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 마음에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찾을 수 있는 단어지 자신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스스로 바리새인이면서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빨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냄새라도 묻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둬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무원입니다. 요즘이야 잘난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세리를 통해 세금을 거둬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이 로마에서 거둬드리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착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에게는 비밀경찰들을 붙여 줬기 때문에 수시로 누구의 집이라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나가는 여인네들 옷자락도 치켜 올릴 수 있고 몸을 검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는 그야말로 죄인 중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리가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던 막내

아들보다 훨씬 죄가 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제야 정신이 드셨습니까? 우리에게 칭찬을 줄 사람은 예수님이지 결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칭찬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그것이 진짜 칭찬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아내에게 잘생겼다는 말을 듣고 싶지 술집 여자에게 잘생겼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아버지 최고야"라는 말을 듣고 싶지 이웃집 자식들에게 "아저씨 최고야"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칭찬 받고 싶은 분은 세상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사람들이 "잘났어"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아버지께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말씀하시면 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칭찬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막내아들이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죄의 용서함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 때문에 마귀도 세상에 떨어졌잖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면 치가 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가장 먼저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은 '교만'을 없애는 사역입니다. 죄인임을 드러내게 하

는 사역입니다. 스스로 세리가 되고 스스로 막내 아들이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니 너무나 좋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없어서 좋습니다. 처음에 교만 끼가 조금 나타나다가도 금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바뀌는 것이 참으로 기적입니다. 그 교만으로 여러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죽게 될 것이었는데 그렇게 죄인으로 바뀌니 세상이 변하고 천국이 그 사람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은사주의자인가? 아니면 관계주의자인가?

은사주의 부부를 보면 능력을 따집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그것도 못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은사주의 부부는 은사가 똑같지 않습니다. 남편의 은사가 훨씬 크던지 아니면 아내의 은사가 훨씬 큽니다.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아내들이 믿음 없는 남편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지 않는 남편의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내의 잘못도 큽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남편과 함께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가르칩니다. 아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남편은 집에서 TV나 보고 있을 테니까요.

치유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여자들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남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여자들이 남편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은 너무 무능해요"라고 시작해서 "내 남편은 나를 너무 몰라줘요"라고 끝마칩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남편들의 반응은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치유사역을 하게 되면, "내가 무능합니다"라고 시작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군요"라고 끝마칩니다. 여자들은 그 초점을 남편에게 맞추지만 남편들은 그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남편을 불평했지만 남편들은 자기자신을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은, 여자들의 가장 큰 적은 '교만'이고 남자들의 가장 큰 적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치유할 때는 그 '교만'을 죽이는 처방책을 쓰고 남자들에게는 '자존심'을 죽이는 처방책을 씁니다. 대부분의 여자에게서 문제는 '교만'이고 대부분의 남자에게서 문제는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교만'을 죽이는데도 예수님이 처방책이며 남자의 '자존심'을 죽이는 데도 예수님이 처방책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만'에 대한 처방책이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자존심'에 대한 처방책이 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에는 여자들이 많이 몰립니다. 하지만 점잖은 교회에는 남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여자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자를 살게 하려면 그 능력을 채워주면 되는 것이고, 남자에겐 자존심으로 세워주면 되

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여자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하십시오. 재정관리를 여자에게 맡겨 보십시오. "목사님 그러다가 큰일 나게요?"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해 보십시오. 시들었던 꽃이 활짝 피듯이 금방 살아날 것입니다. 마음껏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카드를 오픈해 주십시오. 생수를 마신 것처럼 펄펄 뛸 것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내 버려 두십시오. 설거지를 1주일간 안 했더라도 그냥 놔 두십시오. 청소를 1주일간 안 하더라도 그냥 내 버려 두십시오. 모든 결정권을 여자에게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남편에게는 이렇게 해 보십시오.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은 "참 잘했어요"입니다. 남편을 어린 아이로 생각하십시오. 결코 남편을 노동자요 사장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남편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숨고 싶은 존재요 늘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편은 '자존심'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편의 자존심을 치켜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내의 믿음이 더 좋고 아내의 행실이 더 좋아도 오히려 "자기가 최고야"라고 말하십시오. 절대로 남편 앞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 당신은 믿음이 없어?"라고 구박하지 마십시오.

은사주의 부부는 은사를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은사를 얻도록 도와줘"라고 하면 "혼자서 기도하면 돼"라고 찬물을 끼얹습니다. 은사주의 부부는 서로 은사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고 네가 가진 것은 네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 네 것은 네 스스로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은사주의 부부는 어느 한 쪽만 은사를 많이 갖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오히려 은사를 배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엔 은사가 없는 쪽이 오히려 은사를 배격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얻으려 노력해도 안 되고 배우자가 도와주지도 않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져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은사주의 부부에게서 주로 발견하는 것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은사가 있으면 성품이 온화해 지고 사랑이 많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사나워지고 날카롭습니다.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명령적입니다. 융화가 잘 안될 뿐 아니라 독불장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사가 없는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지나치게 은사 제일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은사는 없어서는 안될 좋은 것이지만 은사주의는 있어서는 안될 나쁜 것입니다.

친구같은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신랑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에게 있어서 신

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신랑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마땅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성령님은 어디 계시나고요? 당연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사실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주님께서는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대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신랑 역할을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성품을 닮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될 때 우리는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천국의 지극히 일부분을 체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은사가 천국의 지극히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처럼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 또한 천국의 일부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성령님에 대한 인격을 느낄 때 그것이 곧 주님의 인격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의 맺였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을 때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저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지만 저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히려 저들이 주님과 함께 했을 때보다 더 능력있게 일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을 때는 세상적인 야망을 탐냈고 천국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지만 성령님과 함께 했을 때는 영성이 커졌으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는 십자가에서 모두 이뤄졌으며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르실 수 없으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상태론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들과 동행할 수 없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시면 주님의 손을 한번이라도 붙잡아 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을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이 교황의 손을 언제 한번 잡을 수 있습니까? 평생동안 교황의 얼굴 한번 직접 볼 수 없지 않나요? 이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됨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 14:20)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성령님과 동행할 때라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윗 구절을 자세히 보면, 삼위일체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인 것입니

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관계에서 성령님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성령님은 어디로 가신 것일까요? 왜 주님은 성령님을 빼 놓고 설명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성령님이 같은 보혜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 14:16)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도 보혜사 이심을 나타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께서도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셨고 이 땅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상달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곧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관계 속에 집어 넣기 위해서

스스로 그 자리를 비켜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듯이,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당신이 얻어야 할 영광을 스스로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그 크고 깊은 마음을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수만년을 함께 산다고 해도 성령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계시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사람은 지금 내 말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령님을 어떠한 능력이나 하나님을 보조하는 보조물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성령님의 따스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갑자기 궁금해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온종일 나와 동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아주 긴 세월동안 못 느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꼈습니다. 나의 기도생활에 주님이 빠져 계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종일 나와 대화를 나누시는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도 하시고 '간구하라'고 지시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대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회개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합니다. 간구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기도에 주님께서 빠져 계신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여쭈었습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서운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외면 당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성령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는 "그렇지 않단다. 네가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곧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때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츰 세월이 지났을 때 성령님의 말씀의 뜻이 어렴풋이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지났을 때 성령님의 말씀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말씀대로 성령님과 주님은 같으신 분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성령님과 주님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분은 서로 다른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성령님과 바톤을 체인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이며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치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치리를 성령님께 전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양 그 자체이시다면 주님께서는 태양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빛의 따스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함께 하시지만 각각의 역할분담은 다르십니다.

하루는 베니힌 목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가 시작하기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기 때문에 집회 1시간 전에 도착했지만 결국은 맨 꼭대기 층(4층)에 올라가 앉아야 했습니다. 무대의 사람이 개미같이 작게 보였지만 집회장소를 모두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베니힌 목사님이 무대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영안이 열려 전체 홀에 성령님의 능력이 운행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물결을 치면서 능력이 운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좋았습니다. 그만 다리에 힘을 잃어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여쭈었습니다.

"성령님. 지금 어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인가요?"

너무 황당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지금 '아니,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 누구 성령이라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내가 생각해도 내 질문이 황당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님께서는 매우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운행하는 성령님은 베니힌 목사와 함께 하는 성령님이시란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은 성령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했습니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틀림없는 성령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나는 성령님께 재빨리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럼, 성령님. 지금 나와 대화를 나누시는 성령님은 뭐하세요?"

조금 전의 질문보다 이번의 질문이 더 황당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질문을 했고 성령님의 진지한 대답을 또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나는 지금 너와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집회를 인도할 때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천명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는 그 와중에서 나와 성령님은 계속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고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차를 타고 3시간 운전해서 오는 길에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여전히 성령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

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님의 능력과 인격적인 교제를 확인하면서 성령님의 말씀이 서서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가 된 셈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게 되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마도 모세 역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막을 만들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히 8:5) 성막을 만들었던 위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일년에 단 하루밖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그것도 대제사장에게만 허용된) 지성소를 아무 때나 무시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출 33:11)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마치 친구와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면하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눴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으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은 육신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모세와 약속이라도 해서 정해진 시간에 그곳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바로 영(spirit)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만났습니다. 얼마나 정답게 느껴집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났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친구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출 33:8-10)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친구처럼 그렇게 대면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곧 〈죽음〉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인간은 결코 신과 대면을 할 수 없다'는 개념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보거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꺼려하는 경향마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항상 음성을 듣는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현상입니다. 모두 왼손잡이 나라에 가면 오른손잡이가 병신취급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대단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 정도로 취급을 당하기 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눴을 때 그것이 친구같은 만남이었다면 우리들도 그런 대화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랬다면 당연히 우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친구같이 만나야 할 것입니다. 친구는 허물없다는 의미이고 가장 친밀한 뜻을 가진 단어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만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처럼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도 아니며 신과 인간의 만남도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처럼 신처럼 여기면서 만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오실 것입니다.

나는 주인과 종이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과 인간이 편하게 커피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구관계를 원하십니다. 친구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연인관계〉가 될 것입니다. 친구는 우정을 약속하지만 연인은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연인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꽃처럼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9과

성령님을
만나는 길

어쩌면 당신은 이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환상도 보고 각종 능력의 은사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며 각종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참으로 존경할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얻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사역자를 찾아 나섭니다. 유명하다는 사람은 제 다 좇아 다닙니다. 기도원도 많이 갑니다. 은사를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항상 부러워합니다. 나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괜히 나 자신이 작아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찾아 헤매지만 정작 은사를 얻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특유의 '교만'이 너무나 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성령님과 은사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은사를 얻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 길이 열려 있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선지자나 예언자에게 주로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사람들은 아예 은사를 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은 며칠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같이 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1-4)

이 때 성령님의 능력을 받게 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죽음을 무릅쓰고 소위 '예수쟁이'의 한 사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지만 그들은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 연관

이 있었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때에는 간혹 성령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은사가 나타나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전쟁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못했던 사울왕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삼상 10:10)

그 당시 사울왕은 아무런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다윗을 잡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보좌가 안전해질거란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왕은 나쁜 사람이었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왕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온 백성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신 적도 있었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령님의 역사는 어느 한 지도자의 인도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 이처럼 한꺼번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더우기 사도행전 2

장에서 임하셨던 성령님의 능력은 개개인을 성령사역자로 부르셨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일어난 일들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저들에게 어떤 능력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언급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으며 학문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잡히시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세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담대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큰소리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 "베드로가 열 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행

2:14)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명절을 맞이했습니까? 오순절이었습니다. 해마다 오순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에 돌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이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듯이 유대인들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거처한 곳에 회당이 있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대명절이 있을 때에는 고국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소리를 높여'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의 내용을 이곳에 다 실을 수는 없지만 설교의 핵심은 '예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설교는 또 다른 십자가를 불러 일으킬만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설교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 무리들과 군사들을 피해 은밀한 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누구든지 잡히면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쫓김을 당해야 했고, 심할 경우엔 십자가 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행 2:37)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가 그처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지 미쳐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여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람들의 심령을 사로 잡았다고 봅니다.

바로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자그마치 3천명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의 설교에 수천명이 주님의 백성으로 변했다는 사실말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에이~ 사도행전이니까 가능했죠? 지금에 그런일이 일어나겠습니까?"라고 삐딱한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지금은 베드로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독일인 성령사역자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한번 집회에 수만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집회에 보통 200만명이 집결합니다. 일일이 서약서를 나눠주고 마음이 동할 때 자원해서 회심하는 증거를 남기도록 인도하는데 보통 집회때마다 수만명의 회심 서약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보다 더 지독한 모슬렘입니다. 할렐루야!

비단 베드로만 이런 역사를 일궈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

장에 가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일반 집사였습니다. 물론 그당시 초대교회의 일꾼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그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행 6:8-10)

스데반은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와 변론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그를 뭇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집사였던 빌립의 이야기가 바로 뒷 이어 나옵니다.

>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

라"(행 8:5-8)

빌립은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기적과 표적을 보였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나가고 묶임이 풀리면서 중풍병이 낮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곳곳에 흩어져 놀라운 이적들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삽시간에 전세계로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313년에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부자나 천민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이적을 보였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 눌림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세상의 향락을 탐했던 자들이 세상의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주의 영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며 그 자유함은 로마 전체를 사로 잡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기독교는 세계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성령사역자들을 통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안은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며 막혔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리고 돈이 없어 이빨을 치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좋은 금이빨이 생겨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8)

주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셔야만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성령사역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나야 할 성령님

성령님의 능력은 성령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은

성령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설령 성령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기적과 표적의 주체라면 왜 당신은 자꾸 사람을 좇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가면 뭣이 있길래 그렇게 애착을 갖습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능력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있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성령님만 진짜 성령님이시고 당신에게 있는 성령님은 가짜 성령님이시란 말입니까? 도대체 당신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100% 하나님이시며, 당신이 좇는 사람의 성령님도 100% 성령님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성령님이 더 잘생기신 것도 아니고 더 능력이 많으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 사람의 성령님이나 당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모두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성령님을 쳐다 본다고 당신 안의 성령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아내를 쳐다 보며 침을 흘리는 것이 당신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령님은 그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내 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성령님과만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간음을 가장 싫어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곧

‘우상숭배’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배우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절대로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간음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함께 할 때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간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간음을 행하는 것은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만듭니다.

어떤 책에서는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에는 배우자의 간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줄 것같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배신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성령님을 더 좋아하고 동경하고 흠모하는 것은 일종의 ‘간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모욕이며 상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배반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없어서 그래요…”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열심으로 해 봤습니까? 정말로 애타게 당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찾아 봤습니까? 당신의 성령님과 조용히 함께 하는 시간이라도 가져 봤습니까? 당신이 느낄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성령님을 쳐다 보면 안됩니다. 당신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성령님이 안계신 것도 아닙니다.

수만은 부부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배우자를 느끼지도 못하고 심지어 배우자를 발견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함께

살지만 서로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함께 있어도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마음이 배우자에게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며 딴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나는 배우자 몰래 바람핀 사람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서 수십년동안 바람을 피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피우고 오는 날에는 아내와 등을 지고 잠을 잡니다. 바람을 필때는 팬티를 자주 갈아 입습니다. 여인네에게 향수가 더 진할 때 경고의 냄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요즘 애인없는 사람이 어디있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수십년을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운 사람은 아내에게 아픔을 선사했습니다. 생활비는 벌어 줬을지 몰라도 적어도 사랑은 벌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이 나쁜새끼야~"라는 욕설을 매일 들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도 성령님을 발견하고 성령님을 느끼기 전까지는 제대로 성령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성령님을 그렇게 심각하게 동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성령사역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어쩌다 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가진 목사를 보면 '참 좋겠다……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걸……'하는 생각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령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완전히 딴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니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

스럽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의 관계도 너무나 성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

성령님을 만나는 첫번째 길– 사모함

당신은 성령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을 하십니까?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성령님과 동행을 해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고 충분한 노하우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내게 어떻게하면 성령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나의 경우는 먼저 '사모함'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모함이 있을 때 시간을 낼 수 있으며 관심을 쏟습니다. 그 사모함은 '골방'을 찾게 하며 혼자 있게 합니다. 내게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혼자서 할려니 잘 안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많고 분위기도 좋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교회에 가면 '골방'보다 더 좋을까요? 교회에 가면 '골

방'보다 분위기가 더 좋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혼적인 감정에 치우치 사람입니다. '골방'이 교회보다 몇 배는 더 좋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교회보다 골방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보다 혼자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할 곳에 가지 않습니다. 말없을 때 '영혼의 골방'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주님께서는 언제나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 3년 반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수만명의 사람들이 따라 다녔지만 언제나 기도는 혼자 하셨습니다. 오직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그렇게 홀로 '골방'을 찾으셨습니다. 변형의 산에 기도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고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는 변형의 산에서 드렸던 영의 기도였으며 그것은 바로 '언약궤기도'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찾지 마십시오. 아무리 찾아도 '언약궤기도'라는 말을 없습니다. 어쩌면 이 한 문장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성경을 찾지 마십시오'라는 말만 인용하면 나보다 더 이단스러운 목사는 없을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인 경우가 많은 것

처럼 우리는 기도를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자랑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를 잘 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두번째 길– 영의 활성화

사모함이 있다면 '골방'을 찾을 것입니다. '골방'은 성령님을 만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아름다움도 없고 세상의 요란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눈을 뜰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요란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끌릴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복잡한 문화에서 벗어나 잔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엔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육적인 욕망과 혼적인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곳은 '골방'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골방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골방에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영이 활동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은 곧 내 영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도무지 영(spirit)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혼적이고 육적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도 육적이며 혼적이고 저들이 추구하는 것도 육적이고 혼적입니다. 하지만 골방에 가만히 있으면 육과 혼은 죽습니다. 육과 혼이 죽을 때 비로소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의 영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당신이 성령님과 대화를 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육적인 욕망과 혼적인 마음을 죽여야 합니다. 죽으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분주함'과 '조급함'으로 영의 활동을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육과 혼을 죽여야 합니다. 육과 혼을 죽이면 분주함도 없고 조급함도 없게 됩니다. 육이 살아 있으면 분주함때문에 골방에서 뛰쳐 나갑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도무지 골방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님과 대화할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혼이 살아 있으면 조급함때문에 골방에서 갇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날아다니는 파리때문에 집중을 못합니다. 어쩌면 골방에서 나는 냄새때문에 집중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도 성령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욕망과 혼적인 마음이 죽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의 영(spirit)만이 살아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을 활성화 시켜 주는 유일한 장소는 '골방'뿐입니다.

내가 '골방'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정해진 어떤 장소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골방'은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정해진 장소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역하면서 머무셨던 기간에는 같은 장소를 사용하셨겠죠. 그러나 1년 내내 같은 장소에서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장소가 때로는 하루가 되었을 것이고 때때로 1주일 이상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은 '내 영(spirit)이 쉴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안방이 될수도 있고 작은 옷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영이 집중할 수 있다면 그곳은 분명히 주님께서 언급하신 '골방'임이 틀림없습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골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도 '내 영의 골방'은 언제나 내 것입니다. 귀찮은 사람이 잔소리 할 때에도 나는 언제나 내 골방에서 쉼을 얻습니다. 이것은 훈련에 의해서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영의 기도를 할 때 모기가 내 피부를 물곤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러한 상황을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기 배부르게 하자는 길을 선택합니다. 물론 간지럽습니다. 하지만 간지러움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영의 집중을 합니다. 때로는 밖에서 싸움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것도 아닌 싸움구경인데 놓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영의 안식처인 골방을 찾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모

든 것입니다. 영의 골방에서 쉼을 잘 얻는 사람은 늘 평안합니다. 소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애써 기뻐하지 않아도 늘 기쁩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세번째 길– 성령님과의 동행

만약에 당신이 영의 골방에서 끊임없이 쉼을 얻었다면 당신의 영은 매우 활성화 되었을 것입니다. 왠만한 육체적인 유혹은 무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떠들고 싶은 생각,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행동들을 즉각적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어느새 당신 스스로를 돌아보면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성령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당신의 영이 활성화 되었다면 당신은 금방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소리가 성령님의 음성인줄 몰랐지만 이제는 당신의 영이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인줄 인식하게 됩니다. 한번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대화가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뤄질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세번째 길은, 무엇이든지 성령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 형식적인 기도만 드리지 말고 성령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식탁 의자를 꼭 하나 더 빈 의자를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어떤 물건을 사면 좋을지 여쭤 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도 성령님과 대화를 나눠 보시고요. 커피를 탈 때도 설탕 몇 숟가락이 좋을지 여쭤 보세요. 운전하면서도 성령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시고, 지하철 안에서도 성령님과 대화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당신이 성령님을 만나지 않아도 이미 성령님은 당신을 만나셨습니다. 당신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천사들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 성령님은 결코 먼저 당신을 찾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불러도 대답없는 성령님이 아니라 부르지 않았으면서도 불렀다고 우기는 당신이 문제입니다.

캐네스 해긴 목사님의 꿈 내용을 잠깐 들려 드릴까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꿈 속에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몰려 왔더랍니다. 호랑이도 있고 시커먼 원숭이들도 있고… 모두 싸납게 해긴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 달려 들더랍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와 주세요…. 저들을 쫓아 주세요"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짐승들에 사로잡혀 죽을 지경에 다다랐답니다. 기다리다가 도저히 하는수 없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꺼져!"라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몰려왔던 짐승들이 일제히 물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짐승들

이 다 떠나고 난 후, 예수님께 “왜 저를 안 도와 주셨나요?”라고 여쭸더랍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네가 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단다”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해긴 목사님에게는 아주 소중한 교훈적인 꿈이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당신의 먼저 접근이 없으면 먼저 다가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래?”라고 빈정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정하신 규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없어도 괜찮으신 분이시지만 당신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질 않습니까? 토기장이는 토기를 마음대로 깨트릴수도 있습니다. 토기가 자신을 만든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다가 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을 만나십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손이라도 뻗어 보십시오. 뭔가 해 보십시오. 성막기도로 접근해 보세요. 영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을 만나 성령님과 대화하는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0과

“정말로
성령님 맞으세요?”

저희 카페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영안이 열려 환상을 보거나 여러가지 몸에 특별한 증상은 아주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큰 기쁨이 있었지만 '진짜로 성령님의 음성일까?'하는 의구심도 함께 갖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분이 쫴질텐데… 무슨 의구심이야?"라고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5년 혹은 10년이 넘도록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기울였기 때문에 더더욱 기쁠 것입니다. 춤이라도 추고 싶고 복권이라도 당첨된 듯한 느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쁜 마음과 함께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음성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의구심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현실과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믿자니 현실이 안 맞고, 현실만 생각하자니 성경 말씀이 틀리게 되고…

저희 카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한쪽에서는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지 확증해 달라"는 음성도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목사님, 내가 진짜 성령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라고 답답함을 해소시키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성령님께 여쭙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당신으로 하여금 온전히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 확증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의 반응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

다. 너무나 그 수가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 중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모세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세는 성막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하셨고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의 불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스스로 불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 하나님과의 대화는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출 3:4)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줄 즉각적으로 깨달았다기 보다는 일종의 반사작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날 때에 당연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반응을 해야 옳은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출 3:6)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줄 인식했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했던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고서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는 전통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자녀가 아버지를 만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대면할수도 있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의 반응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줄 알고 "내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다고 돌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세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때에도 아마 하나님의 음성인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 제

사장은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삼상 3:9)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킨대로 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하다보면 예언을 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는 이미 나의 음성을 듣고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줄 알았습니다. 그 음성이 마치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불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경우가 바로 사무엘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이 자신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남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레미야의 반응

예레미야가 청소년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그가 몇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린나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렘 1:5)고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렘 1:6)라고 반응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슬프다"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슬프다〉란 히브리어는 אֲהָהּ(아하흐)인데 이것은 '오호 통재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슬프도소이다'로 쓰였고 가끔 '오호라'라는 감탄사로 쓰여졌습니다. 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듯이 이것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말로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으니 내가 슬퍼할 수 밖에 없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레미야가 어째서 "슬프도소이다"라고 감정을 표현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의 부연설명에 의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조금이나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어린아이이기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 “슬프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슬픔은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자신의 무거운 짐때문에 갖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실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삶 자체가 위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의 반응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로에서였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가 누구인

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여 뉘시오니이까?"(행 9:5)라고 되물었습니다. 바울이 "주여"라고 말한 것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신 분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서 "주여"라고 했을 뿐,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인줄 알았지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 역시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인줄 모르고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나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서 성경인물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모두 다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반응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요?"라는 반응입니다. "많이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의롭게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들 중 죄 하나 없이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털어놓고 보면 다 죄인이요 살펴보면 한결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그 사람의 신앙상태가 낮은 단계에 있어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마귀는 총력을 기울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토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삿 6:14-15)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삿 6:17)라며 하나님께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기드온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기드온처럼 '표적'

을 구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자신의 약한 믿음을 후회하면서 "슬프도소이다"란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당신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증명하시오"라고 따지는 불효막심한 사람과도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 "보고 놀라며 무서워"(눅 1:12)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무서워 떨 정도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 역시 마귀의 공격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서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눅 1:13)고 했을 때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눅 1:18)고 대답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열심히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천사가 나타나 자식을 주겠다는데 하는 말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내 아내가 이미 늙었는데요?"라며 낮은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사가랴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달라고 몇 달 몇 년을 기도하

고 간구하며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음성을 들려 주었더니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라며 딴청을 부리는 행동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피자를 주문해 놓고 피자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시킨적 없다”며 딴소리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나?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영의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 것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단 한 번도 육신의 귀로 들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담과 대화를 나누시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셨던 하나님은 모두 영으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에스겔도 영으로 대화를 나눴으며 모든 선지자들이 저들의 영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도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해 주는 구절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요 1:32-34)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 오실 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습니다(마 3:16).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만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하늘에서 들려진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들린 소리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못 들었습니다.

세례를 주었던 세례요한 조차도 하늘에서 들린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줄 알라" 하셨기에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때문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누군가에서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니라"고 말씀해 줬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요한은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들려왔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눴으며 가인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정답게 대화를 나눴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라 하셨으며 하늘의 뭇 별을 보라 하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일대일로 면담을 나누고 계신 것을 못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일대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다면 그 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오직 단 한 사람만 소리를 듣는다면 그 소리를 어떤 경로를 통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하철의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spirit)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오직 영으로 우리와 교통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모두 영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영이 활성화됐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한번도 내게 '영의 활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그 단어를 사용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활성화'라는 단어가 왠지 기계적이고 훈련적인 단어같아서 좋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이 활성화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대화를 나누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갖는 또 다른 궁금증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도대체 나와 대화를 나누시는 분은 누구세요?"

"아니… 도대체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 분 모두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갖는 질문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 중 어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야 그 질문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언뜻 보면 황당한 질문같지만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한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아주 수준이 높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조금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정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 의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구속하셨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것 역시 아무도 반대 의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 부분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시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친히 하나님이시면서 친히 인간의 몸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도록 도와 주시고 함께 기도를 도와 주시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몸 안에 거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돕고 보조하는 성령(It)일 뿐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런 생각은 기독교과 불교와 다른 것처럼, 또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령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세 분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각각의 위격이 서로 다르시지만 인간의 구원을 향한 목적을 두고서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모든 사역을 담당하시

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식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고전 12:4-6)

하나님아버지께서는 태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양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빛을 온 만민에게 쬐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올바른 설명이요 정리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는요? 너무 복잡합니까? 이것을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도 함께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도 함께 취하십니다. 인간에게 보이시는 사랑도 언제나 함께 하셨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함께 일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 14:20)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7)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앞서 언급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동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경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아니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운 아버지로만 생각할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 가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이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당신과 일대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물론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도와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당신이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주님"이라고 찾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당신은 '주님'과 '성령님'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구분 역시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는 사람은 성령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에 대한 지식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이유도, 그 동안 성령님을 통해서 지식을 전해 들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말씀 그 자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지만요…

성령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구분과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이제 나는 좀 더 깊이있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개념이 없이 섣불리 설명을 하거나 설명을 들을 땐 예측하지 못했던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너무 충격적인 질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대화를 수준높게 듣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때문에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당신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시고,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들을 수 있으며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함께 대화를 나눴을 때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존재하지 않으셨나요?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이

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코 세 분의 하나님을 따로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같다고 말할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분의 하나님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의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시듯이 음성을 주시는 분도 각각 다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실 수 있으며, 주님께서도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아버지께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실 수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늘 당신과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성령님과 가장 먼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 뵐 수도 있을 것이며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또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이런 설명을 궤변이라고 생각하며 이단성이 강한 언급이라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성령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또 주님과도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면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행동일 것입니다. 비록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도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남자가 아기를 못 낳은다고 해서 아기 낳는 것을 부정할수는 없잖습니까?

나의 이러한 설명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릎을 치면서 이해할 것입니다. 내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닐지라도 성경에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은 결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바울은 오랜 세월전에 이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그 사실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 2:9-11)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오직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 오직 성령님을 통

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육적인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러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전 2:14)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워킹위드바이블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희귀성이 약해지는 것 같지만 하버드 대학에는 모두 천재들이 모여 있듯이 이곳 또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곳에서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나요?"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든 이유 중 가장 절대적인 것은 육(body)과 혼(mind)의 영역때문입니다. 육적인 욕망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할때에도 음성을 듣기란 참 힘이 듭니다.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정결을 이룹니다. 로마서 1장과 고린도전서 6장과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죄악들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워킹위드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정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매시간 짓는 크고 작은 죄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날마다 성막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죄가 저들을 덮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룩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워킹위드바이블에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결함과 거룩함이 준비된 사람은 육적이고 혼적인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과정만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집중의 과

정입니다. 집중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이며 주님께서 행하신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는 영으로 드리는 기도이며 방언기도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막기도를 통해서 차원높은 영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기도를 가리켜 〈언약궤기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결〉과 〈거룩〉, 그리고 〈집중〉의 단계가 확실하게 갖춰진 사람은 누구든지 쉽고 빠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빠르고 쉬운 이유는 영이 활성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활성화 되는 것이 왜 음성 듣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냐면, 성령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영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6)

우리의 영이 활성화만 되어 있다면 아주 빠르고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훈련을 통해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영이 뭣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육과 혼이 없어야 합니다. 육과 혼이 없어질 때 비로소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방언기

도입니다. 방언기도는 은사 중 하나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방언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이 커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기도를 할 때 방언통변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이 커지는 것을 위해서만 방언기도를 합니다. 방언기도를 할 때 딴 생각이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을 집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라디오 주파수와 같습니다. 라디오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전원을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공중에는 이미 라디오 주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방송을 듣고 싶을 땐 정해진 채널대로 주파수를 고정시킵니다. 라디오를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파수를 잡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주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라디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파수를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만 또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님 맞으세요?”

오늘 워킹위드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자매님

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끝에 자매님의 속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 근래에 그 자매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는 영성일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함께 기뻐했기 때문에 적지않은 심적 부담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적부담 내면에는 또 다른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갖고 있었던 질문은 "정말로 성령님 맞으세요?"였습니다. 그 자매는 성격이 매우 활달하며 애교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님 글을 읽으면서 기쁨을 갖습니다. 나 또한 그 자매의 글을 읽으면서 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성령님께서 유머가 너무 지나치거든요?" 성령님께서 유머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서 무슨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성령님께서 촌스럽게 웃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 촌스럽게 웃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이 질문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 자매가 생각하는 걱정처럼 성령님의 음성이 아닌 그 자매의 영의 소리일까요? 충분히 그럴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영과 더불어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쉽게 말해 내가 내 생각과 대화를 한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 자매는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지나친 캐쥬얼 스타일식의 음성때문에 '혹시나'하는

의구심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물론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사실이지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내 아내와 함께 하는 성령님께서 같으신 성령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도 나와 함께 하는 성령님은 내 성령님이시고, 내 아내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내 아내의 성령님이심도 믿으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내 아내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상당히 양반 스타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내 아내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다소 개방적이십니다. 그래서 유머감각도 뛰어나십니다. 나와는 결코 그렇게 유머스럽게 대화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성령님이 우리의 성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부분이 아닙니다. 베니힌 목사님의 성령님은 보통 사람의 성령님보다 더 뛰어 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똑 같습니다. 하지만 왜 같은 성령님이신데 내가 사역을 하면 베니힌 목사님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나죠? 성령님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성령님의 능력이 서로 다르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는 성령님의 능력은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타나는 능력이 다른가요? 그것은 성령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인제공이 있는 것입니다. 베니힌 목사와 내가 믿음과 신앙적인 면에서 다른 것입니다. 성품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육체도 다릅니다. 이러한

다름때문에 성령님께서 다르게 나타나신 것 뿐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당신의 성령님과 다른 사람의 성령님은 모두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과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능력이 서로 다릅니다. 안드레와 사도요한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모두 같은 성령님이셨지만 드러나는 능력과 모습은 서로 달랐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과 내 아내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서로 다른 성품의 성령님으로 표출되듯이 그 자매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그 자매와 함께 하신 고유의 성령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이 양반 갓쓰신 분처럼 느껴지지만 그 자매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도 갓을 씌울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 자매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청바지를 입고 계신 성령님이실수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까?

11과

음성과
믿음의 관계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고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음성을 들었지만 들은 음성대로 일이 이뤄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매우 혼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성령님과 갈등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나였지만 그것이 나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몰려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큰교회를 세우고 내 이름이 유명해 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얻은 혜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랍게 발전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지금 같은 관계성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 정도까지 발전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해지면서 성령님께서는 내게 워킹위드바이블을 개설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랐고 성령님의 음성에 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워킹위드바이블 카페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의 삶이 급속도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날들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는 내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음성과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껏 내가 생각해 온 것이지만 이번에 성령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대화를 통해서 얻게 된 내용을 그대로 적어봅니다. 나는 늘 이런 식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말씀을 해석할 때도 이렇게 듣고 있으며, 성막기도를 인도할 때도 세세한 부분까지 음성을 전해 듣습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음성과 믿음은 별개이다

"성령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믿음이 적은거죠?"

"음성과 믿음은 별개이니라. 너희는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믿음

을 대신해 준다고 믿느니라. 하지만 그것이 아니니라. 음성과 믿음은 별개이니라.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날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지만 내 음성을 듣는 자 중에서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으냐? 저들은 내 음성을 들었다고 뽐내며 자랑하기에 바쁘느니라. 내 음성을 듣는 것이 저들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함이었더냐? 그렇지 않도다.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은 마땅히 내 안에 거해야 하느니라. 저들로 세상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내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느니라."

"내 음성을 듣는 것은 저들의 영이 나와 만났기 때문이니라. 저들이 스스로 지닌 영이 깨어 있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닌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저들이 스스로 지닌 영의 세계를 깨닫는다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니라."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은 저들의 영이 깨어나 나를 바라 본 것이니라. 저들의 영이 깨어난 것은 육적인 세상에서 벗어난 것이고 혼적인 자기세상에서 벗어난 것이니라. 그래서 저들은 나를 만난 것이고 나의 음성을 들은 것이니라."

"하지만 저들의 영이 깨어나 나를 만나고 내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저들의 믿음이 큰 것은 아니니라. 음성을 듣는 것은 저들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니라.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

이 큰 것이 아니니라."

"성령님…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을 보거라. 아브라함은 나의 귀한 자녀이자 나의 귀한 믿음의 자녀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믿음있는 자'로 여기셨느니라. 하지만 너희가 바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을 때 저의 믿음을 보이지 않았느니라.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이더냐? '믿음의 아버지'란 뜻이 아니더냐? 저가 '믿음의 아버지'란 이름을 받았을 때 정작 저가 내게 보인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느니라.

창세기를 보거라. 창세기 17장을 찾아 보거라.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게 대했는지를 찾아 보거라."

>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창 17:16-18)

"자, 그 구절들 중에서 내가 저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의 부분을 찾아 보거라.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거라. 아브라함이 내게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그렇도다. 아브라함은 내게 저의 믿음을 보이지 않았느니라. 저가 믿음이 있었는데도 그 믿음을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니라. 그때 저의 믿음이 없었느니라. 저가 내게 보일 믿음이 없었느니라."

"나는 저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느니라. 하지만 저는 내 말을 믿지 않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내 말을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더냐? 저가 내 말을 들을 때 저의 지식으로 판단한 것이니라.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생각에는 '어떻게 이 나이에 자식을 나을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던 것이니라."

"내가 누구더냐? 하나님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의 태도가 무엇이었더냐? 저의 태도는 나의 말을 믿지 않음이 아니더냐? 저가 내 말보다 저의 생각을 더 신뢰했던 것이니라. 나는 아들을 가질 것이다고 했지만 저는 내 말을 믿지 않았으며 자신의 생각을 믿었던 것이니라."

"그래서 음성과 믿음은 별개인 것이니라.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음성을 듣는 것은 나의 의지이니라. 사람이 음성을 듣고 싶어도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으면 그는 내 음성을 들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느니라. 그 마음에 나를 사모함이 큰 것을 볼 때 내가 그에게 음성을 전해 주느니라. 하지만 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믿는 것은 아니니라. 네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느

니라. 내가 다시 말하건데, 내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저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니니라."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음성을 들려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니라.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나이지만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은 그 사람이니라. 그래서 음성과 믿음은 별개이니라."

믿음은 어떻게 키웁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나요?"

"믿음은 나를 믿어야 하느니라. 내가 누구더냐? 하나님이지 않더냐?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저들이 누구를 믿고 있다는 말이더냐? 내 말을 믿지 않는 저들은 두대체 누구냔 말이더냐?"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니라. 저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내 말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내 말을 믿지 않았을 때를 보거라. 얼마나 추하더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더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서 얼마나 믿음 좋다고 떠들고 있더냐? 회개해야 하느니라.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정녕 내

말을 들어도 내 말을 들은 것이 아니니라."

"나는 저들이 내게 돌아올 것을 바라고 있노라. 저들이 내게 돌아오는 것은 내 말을 그대로 믿을 때 가능한 것이니라. 저들이 내 음성을 듣지만 여전히 저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보는도다… 참으로 슬픈 일이도다."

"왜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더냐? 왜 저들이 내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을 믿지 않더냐? 저들의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니라. 마귀가 저들의 마음에 의심을 불어 넣은 것이니라. 내가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듯이 마귀 또한 저들에게 의심을 불어 넣느니라."

"저들이 스스로의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마치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여기느니라. 참으로 내 마음이 슬프도다. 어찌하여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가? 저들이 내 음성을 들으면서도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 내 음성을 듣지 않은 것보다 못하지 않더냐?"

"마귀를 조심하거라. 내가 너희를 찾듯이 마귀 또한 너희를 찾고 있느니라.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내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내 음성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내 음성을 듣고도 아브라함처럼 스스로의 생각을 먼저 내세운다면 이미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니라. 마귀는 너희 마음의 의심으로 너희 마음을 사로 잡고 있느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도무지 내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을 그대로 믿지 않느니라. 이미 마귀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저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은양 자신의 생각을 내 음성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도다. 아~ 참으로 슬픈일이 아닐수 없구나...."

"마귀의 음성은 네 마음의 의심으로 찾아 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네 마음에 의심이 들면 그것이 마귀의 유혹임을 잊지 말거라. 내가 주는 마음은 오직 평안이니라. 하지만 마귀가 주는 마음은 의심뿐이니라."

"의심이 네 마음에 들 때 너의 마음은 기쁨이 없을 것이니라. 의심이 네 마음을 찾아 올 때 불안과 초조함이 있을 것이니라. 네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니라. 네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게 될 것이니라."

마귀의 의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성령님…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의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다윗아… 내가 일전에 너와 나눈 대화를 기억하느냐? 너의 부모에 대한 대화를 기억하느냐? 네가 네 부모에 대한 일로 나의 마

음을 아프게 했을 때 나는 네게 중대한 말을 했노라. 그 말을 기억하느냐?"

"나는 네게 "내가 누구더냐?"라고 물었고 너는 내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더냐. 내가 네게 뭐라 말했더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내 말을 믿거라"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내가 네게 원했던 것은, 네게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내 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느니라. 너는 나의 말을 믿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니라."

"나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니라. 저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나의 말을 믿을 것이니라. 저들은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긴 자들이요 내게서 떠난 자들이라. 내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느니라. 이미 저들은 마귀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이 스스로 잘한 선택인양 뽐내는 것이니라."

"마귀는 내 말과 반대되는 말을 주지 않느니라. 마귀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더냐? 그렇지 않도다. 저는 교묘한 자요 교활한 자도다. 저의 혀가 사람을 낚는도다. 저의 지혜가 사람을 병들게 하는도다. 이땅의 많은 나의 자녀들이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도다. 참으로 슬픈 일이로다."

"마귀는 내 음성에 의심을 첨가하는 자니라. 내 음성은 언제나 긍정적이지 않더냐? 내 음성은 언제나 기쁨으로 전해지지 않더냐? 내 음성은 언제나 너를 위로하지 않더냐? 하지만 마귀의 의심이 네 마음에 찾아 올 때 내가 네게 준 기쁨이 사라지지 않더냐? 나

와 네가 멀어지지 않더냐? 네가 나를 찾는 것이 뜸해지지 않더냐?"

"마귀를 조심하거라. 마귀는 결코 내 말을 가로막지 않느니라. 저는 다만 내 말에 의심을 첨가하느니라. 그 의심을 조심하거라. 마귀의 의심은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음성을 믿지 않게 만드느니라. 마귀은 그렇게 끊임없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 놓느니라."

워킹위드바이블을 축복하소서

"성령님… 워킹위드바이블을 잘 이끌어 가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다윗아… 너는 참으로 잘 하고 있느니라. 너는 내게 큰 기쁨이라. 내가 너를 통해 받은 영광을 보노라. 내가 너를 통해 얻은 기쁨을 세노라…"

"내가 너를 들어 쓴다는 약속을 잊었느냐? 내가 너를 위대한 사역자로 세운다는 약속을 잊었느냐? 내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니라. 워킹위드바이블을 통해 너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느냐? 너의 사역은 백성의 마음을 내게로 돌리는 사

역이니라. 너의 사역은 나와 자녀의 관계를 굳게 하느니라. 이 땅의 네 사역처럼 귀중한 사역이 또 어디에 있더냐?"

"네가 받은 것에 감사하거라. 네가 내게 보인 믿음은 값진 것이니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너의 믿음이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하는도다. 너는 참으로 나의 기쁨이니라."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워킹위드바이블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나를 찾기에 갈망함이 있도다. 나를 그리워하는 자들이라.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라.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자들이라."

"오라. 내게로 오는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품어주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큰 도움이 되리라."

"세상은 너희의 것이 아니니 오직 너희 마음을 내게 있게 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요 꼭 있어야 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의 인도자가 될 것이고 천군 천사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잊지 말거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니라."

정말로 성령님 맞으세요?

초판발행 2014. 12. 24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등 록 제C-2013-018599호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더목사)
홈페이지 www.WalkingWithBible.com / www.LivingWaterChurch.co
이 메 일 mail@walkingwithbible.com

국제신학교
www.WSLseminary.org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을 위한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사역학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계약총회에서 인준한 신학교로서 목회학석사 졸업자는 강도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국제신학교는 1년 4학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학생의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국제신학교는 수시 입학이 가능하며 국제성경연구원의 회원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www.wslseminary.org(한국어버전 없음)
- 문의: 손에스더목사(010-3909-8844)
- 접수처: www.wslseminary.org/apply_kor.html
- 이메일: mail@wslseminary.org